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24. 6.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2024년 제4차(6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4년 제4차(6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024. 6. 4.(화) 13:3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1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8)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8) : 한숙영, 신기태, 류현숙, 신혜숙, 정원석, 이승욱, 맹다미, 박보우 위원
- 안 건 : (심사) DDP 시민참여 문화행사 등 17건
(지방재정영향평가) CES 2025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
- 심의결과 : 적정 4건, 조건부 추진 6건, 조건부 추진(2단계) 2건, 재검토 5건

【13시 30분, 개회】

1. DDP 시민참여 문화 행사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여기 특별히 주말 행사로 DDP 도시락,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디자인 쪽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제품들도 있지만 디자인문화

확산이다 보니까 디자인 푸드와 접목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심 속에 디자인에 대한 그런 푸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맛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한강에서 하는 야시장과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 거고요, 디자인 푸드의 신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처음 런칭하는 그런 음식들을 선보이면서,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 그릇이라든가 디자인 상품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문화적으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은 디자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처럼 큰 매출액이나 거래 판로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DDP에서 시범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마다 푸드트럭과 그리고 디자인 상품, 디자인 문화가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 ○○○ 위원

-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격도 산정을 하실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통제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본 건데요.

○ 사업부서

- 저희는 지금 공모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다 공모를 하고, 그리고 가격 단가는 협의를 통해서 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 위원

- 그것을 통제하는 위원회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아직은 저희가 만들진 못했지만 예산을 받으면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연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사업예산이 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데 2024년 사업비 대비해서 76.5%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 사업부서

- 예. 신규사업.

○ ○○○ 위원

- 그러면 아까 도시락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했으면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은 없는 건지요? 전액 시비로 진행하기보다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15억이었어요. 그러면 한 계절당 축제 예산이 3.7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봄 축제를 했는데 사실 8억 규모의 그런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요.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했다 해서 시비만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들과 후원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봄축제에는 KT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KT와 현대백화점 면세점, 농심 이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저희 행사 규모를 3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했습니다. 그러니까 3.75의 예산으로 그런 큰 규모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니즈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적으면 공간이 한정되는데 사실 DDP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도 있습니다. 이 일대를 다 활성화시키면서 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증액을 이번에 요청드린 겁니다. 사실 이 예산으로는 사계절 축제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 축제로 20억을 신청한 게 축제당 한 5억 정도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 위원

- 참여하는 민간기업에서 받는 분담금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시비와 ratio가 어떻게 되는지.

○ 사업부서

- 저희는 콘텐츠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 동물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면 그쪽에서 동물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협력 부스를 제안하고, 영화제 콘텐츠를 저희가 무상으로 줍니다. IP라는 부분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의 후

원을 받아서 해결이 되면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본 사업이 '22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효과분석이 지금 자료에는 만족도만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평소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지금 몇 명 온 것은 알겠는데 이게 평소에 온 것에 대비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아니면 주변 상권의 매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나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올해 조금 그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축제로 그냥 바로 예를 들었던 게 봄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4일간 25만 명이 왔습니다. 보통 DDP가 방문객은 3만 5천에서 4만 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니까 6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 상권의 매출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티아울렛이나 두타나 주변 상권을 했는데 현대시티아울렛 같은 경우는 12.7%라는 놀라운 매출 기록을 세웠고요, 주변 상권들은 사실 매출을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타를 예를 들어서 봤더니 5%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걸 조금 지표로 저희가 삼고 조사를 강력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났을 때 결과보고에 효과성 분석이랑 파급효과를 수치화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네. 올해 사업은 제출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 위원

- 지금 계절별로 하셨으니 작년까지는 4회를 하신 것이고요,

○ 사업부서

- 작년에는 사실 3회를 했습니다. 여름축제를 못했습니다.

○ ○○○ 위원

- 3회를 하신 것이고, 올해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월별과 격주로 하시면 숫자로 따지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개최 숫자로만 봤을 때 4배가 증가하는데 축제 자체의 규모가 기존에 3회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작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저희는,

○ ○○○ 위원

- 동일하게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네, 동일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은 4회를 15억으로 진행을 하고, 이 투자심사 할 때는 20억을 저희가 목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현저하게 지금 사실 적은 금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큰 규모로 계속 나가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20억을 신청을 한 것이고.

사실 많은 민간기업들이 저희와 협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려면 공간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위원

- 건수를 늘이면 모객이 그 정도로 따라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실 DDP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방문객들이 적었는데 올해 특히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해외 외국인 방문하는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증

가세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시 기조와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경기가 어려우면서 도심 속에서 휴가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것을 DDP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 시간 제한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퇴장해 주셔도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 생각에는 적정으로 하고 효과성이나 파급효과 분석을 제출하는 걸, 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걸로 하면 어떨지 싶은데요. 사업부서에서의 생각이 궁금해요.

○ ○○○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도시락 푸드트럭 그게 잘못하면 좀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것을 추후에 내년에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든지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푸드트럭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 ○○○ 위원

-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안전보다는 가격에 대한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 ○○○ 위원

- 가격이나 운영에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고, 계속 할 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행사를 할 건데 그게 처리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고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지.

○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 행사 같은 경우에는 DDP 특성상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로나 혹은 이동동선 방향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락을 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구역이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늘어나는데, 어느 위치에서 하시고 싶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잔디나 이런 것들로 조성을 해놓은 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DDP 이후에 잔디나 이런 것들 복원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통제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리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도시락 같은 것을 할 때면 사실 들어오는 기업에서도 일부 예산 부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제 DDP 쪽 안에 상권이 또 있어서 지하 상권에서 거기 상인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미 상권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조성되어 있거든요, 요식업들이.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요식업하고 관련해서 조건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음식에 관해서는 가격이라든가 주변 상권 간의 관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그다음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으니까 효과 분석에 대한 것을 향후에는 제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 ○○○ 위원

-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두타에서 5% 더 했다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그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성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일한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올해 여러 가지 몇 건의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효과성이나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을 조건을 달지는 않았지만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도시락 행사가 들어왔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다면 이걸 과감히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가는 것도 일단 검토해보고, 안 되면은 제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 우선은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주변 상권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갈등구조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하게 되면 추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효과 분석하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면 아마 분석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네,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걱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심의를 해야,

○ ○○○ 위원

- 조건부 적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 위원장

- 조건부 추진이라는 정식 명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건부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시

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 진행해도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2. DDP 활성화를 위한 DDP 디자인둘레길 기획전시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아직 뭐가 전시될지는 결정이 안 되신 상태예요?

○ 사업부서

- 올해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착시효과라고 해서 아나모픽 기법을 사용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전시를 가지고 평면적인 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설치아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 ○○○ 위원

- 왜 여쭙봤냐 하면 저희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문화적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을 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것을 거실 건지 한번 여쭙봤었습니다.

○ ○○○ 위원

- 지금 이 5억 5천 중에서 예산의 실제 주로 비용에 대한 내역이 주로 뭔가요?

○ 사업부서

- 예를 들어 첫 번째 올해 계획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 제작되어 있는 작품이 오는 형태가 아니라 공간에 맞춰서 그 공간을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작비용이 지금까지 협의된 바로는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런데 그 1억 제작비용 안에는 작가 플러스 지원인력의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장치, 장비가 조금 사용이 되는데 프로젝션을 벽면에 공간에 투사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 장비의 운영비용 정도가 소요가 되는 비용이 1억 정도이고.

그리고 5억 5천 안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한 1억 2천 정도는 운영비입니다. 공간에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관람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할 것을 대비해서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인력을 투입을 시켜야지 되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볼게요. 지금 야외 공공전시도 하고 있는데 야외 공공전시 때는 실제 전시하는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둘레길 전시는 아까 그 공간에 맞춰서 기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야외 공공전시 같은 경우에 한 3회를 해서 한 2억 2천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가장 큰 비용의 세부적인 내역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죠?

○ 사업부서

- 3개 전시에 2억 2천이 소요되는데 그것에서의 가장 큰,

○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5억 5천으로 이 둘레길 전시를 하시는 것이고, 기존에는 야외 공공전시는 한 2억 2천으로 3회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한데 전시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차이가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이나 이거죠.

○ 사업부서

-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야외전시의 경우 새로 제작되는 작품은 없었고요, 기 제작된 작품이 와서 설치·운영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제작비용은 없었는데, 이번 실내 둘레길에 하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또 하실 계획이잖아요, 계획서상에? 그러면 올해 한 내용들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거기 전시 기획을 공간에 맞춰서 다시 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우선 올해 설치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반응이 좋다 하면 굳이 4개월 하고 치워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그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를 설치를 한다 라고 하면 장치·장비를 상설로 설치를 하고 콘텐츠만 교체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건 작가랑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어떤 부분에서요?

○ ○○○ 위원

- 전시기간과 관련해서.

○ 사업부서

- 네, 그 이후로도 더 작품이 남게 될 경우 작가와 협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작가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 사업부서

- 네. 왜냐하면 이게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작비

용을 드리면 그 비용 안에 이 작품을 저희 쪽 공간에 만들어주시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 위원장

-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 ○○○ 위원

- 이것하고 다음 번 디자인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돼 있는 디자인이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다 좋은데 그게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것을 담보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사실인데.

○ 위원장

- 저도 궁금한 것은 이 안에 내부 시설의 보행자,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순환하고 다니는지, 여기가 목적성이 있는 통로인지. 이게 목적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지점의 보행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 ○○○ 위원

- DDP 가보셨으면 보행은 많이 하는 공간인데, 저는 제가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이유는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DDP가 어쨌든 서울의 중심에 있는 랜드마크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문화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필요한데, 문제는 올해 하고 또 내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올해 조금 신중하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씩 이렇게 길이 경사가 살짝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담으면 시민들이 찾아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어떤 핫플레이스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기대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도는 굉장히 참신하기 때문에 5억 5천 범위 내에서 일단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올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작가하고의 그 작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원래 행사성 사업은 한 번 투심을 받으면 3년 동안 투심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투심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 ○○○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업비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시를 설치한 다음에 전시를 내리는 비용도 클 뿐더러,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떤 특정 공간에서 실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운영요원이나 아니면 안전요원이나 별도의 그런 요원이 필요 없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게 또 1억 8천 잡혀 있고, 5억 5천 중에 1억 8천이 잡혀 있고, 철거비용 잡혀있고 설치비용이 잡혀있는데 설치하고 철거비용이 1억이 넘고. 그리고 작가하고 설치기간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되지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분쟁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단순한 구두가 아니라, 화답이 아니라 어느 정도하기로 했다 픽스된 뭔가하고, 예산에 대한 예산내역서가 세부적으로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뢰하면 이 불필요한 1억 8천이 필요가 없는데, 안전요원이나 이런 게 없는데 1억 8천이나 들어가고 이런 게 좀.

○ ○○○ 위원

- 지금 보니까 안전요원도 있는데 아마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전시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 ○○○ 위원

- 기획하고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 ○○○ 위원

- 예, 그런 것 같고. 아까 작가하고의 협의는 사실 투심을 통과해야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예산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 위원장

- 저도 지금 여기 통로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가의 작품이 들어가게 되면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시범적으로 올해를 하고, 올해는 이게 효과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니까 올해는 이 건으로 관리주체를 운영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 뭔가 작가를 바꿔가면서 효과가 있다 판단되면 시설 보수해서 CCTV라든가 하고, 인력의 규모는 줄이고 시설보수 쪽으로 해서 정리화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거든요.

○ ○○○ 위원

- 그러시면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사업기간이 9월인데 사실 이게 투심이 늦어지면 사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심사를 하게 되면 8월 정도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아니면 8월 정도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조건을 달아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 ○○○ 위원

- 지금 PDF 7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해당 작가가 하는 설치방식이나 디자인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이나 관리비를 그렇게 크게 책정을 안 하신 사유가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사실상 철거비가 한 번밖에 안 든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대략적으로 알기는 하겠거든요. 공간에다 페인팅을 해놨기 때문에 훼손을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 훼손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는 거기에 주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만 해주면 사실상 이후에 작품 훼손으로 인한 관련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작품이라서 사실 철거비를 지금 책정을 할 게 아니라 사후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철거를 해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번에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치울게요.’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다 페인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철거를 하시겠다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 ○○○ 위원

- 그러면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 ○○○ 위원

-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설치하고 철거하는 게 1억 4천이거든요. 그 정도면 전시기간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심사비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작품을 이렇게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나 심사비가 왜 필요한지 이게 저는 make sense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치랑 철거비용이 많이 들 거면 제 생각에는 이게 새로운 작품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또 새로운 걸 걸기 전까지는 이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걸려 있는 상태로 두는 것. 두세 달이 아니라. 그래서 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그걸 인조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시설이 한 번에 끝나는 건지, 기간이 얼마큼 소요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새로운 작가가 다시 나온다거나 또 나와서 할 필요가 있는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재활용, 기간, 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철거비용을 반드시 올해 쓰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열어놓고. 그다음에 예산 책정을 지금 가안 위주로 뽑았는데 작가랑 협의해서 작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작품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주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낭비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자는 총체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 위원

- 위원장님, 하나 첨언하자면 심사비 같은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 까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하라.

○ 위원장

- 예산 재검토. 그러면 다른 이견 없으시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추진코자 하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3. 장한별 아트 페스티벌

○ 위원장

- 그럼 다음 안건 모셔주세요.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여기를 보시면 ‘조선시대 군마를 키우던 방목장이자’ 블라블라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과 관련된 행사는 어떤 게 있어요?

○ 사업부서

- 말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장한평 자체가 말, 탈 것, 교통, 이러한 키워드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때 군마 시험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말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에요?

○ 사업부서

- 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기에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문제가 좀 있어

서 말을 오브제로 한 여러 가지 구성된 오브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존으로 해서 꾸밀 예정에 있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았었던, 지금은 모르는데 왜 우리 승마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 운동기구에다가 말 모양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말을 탄 것처럼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말에 대한 특성이 강조되는 페스티벌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본 시설을 말씀 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 사업부서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이걸 특이한 의견이 별로 없으실 것 같네요.

○ ○○○ 위원

- 이걸 저희끼리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 이전에 했던 것하고 차별성이 없고. 이전 축제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는데 지금 그 축제들 흡수 통합하면서 장한벌 이렇게 한하는데 본인들은 아시겠지만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모객이 어려울 것 같아요. 홍보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 ○○○ 위원

- 저는 이걸 재검토 의견으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맥락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데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에 관한 것만 여쭙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아직 안 잡히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행사를 실제로 실행하셔도 별반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 이게 승마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을 방문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말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도 많으시고 한 분이 계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말 체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연락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이 또 여러 가지도 있고 하니까 이걸 말에 진짜 특화된,

○ ○○○ 위원

- 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별성에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요.

○ ○○○ 위원

-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건을 걸기도 좀 애매해요.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 위원

- 프로그램을 짜오라고 해야죠.

○ 위원장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 ○○○ 위원

- 이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고요. 사실은 시비에서 축제 공모해서 2억 원을 배정하는 걸로 일단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 ○○○ 위원

- 그래서 저는 걱정이라고 하는 게 시비가 20 몇 %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

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한 70% 들어간다고 하니 잘해봐라. 그래서 말이라는 걸 특화할 것이면 기존의 축제하고, 또는 여타 축제하고 차별화를 시켜라.

○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선 말과 관련된 행사라고 하는데 행사의 색깔이 너무 흐리니까 말 문화에 대한 행사 특성화를 좀 더 강화시켜라라는 조건으로 해서 보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나 부적정으로 가실지를 과반수 이상이니까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약간 그렇기는 한 게 이미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고, 서울시 예산이 한 20% 이 정도 들어가고, 20% 조금 남짓 된 것 같고, 자치구 사업으로 하니까,

○ 위원장

- 그럼 거수할까요?

○ ○○○ 위원

- 저는 조건을 달아도 되고 재검토를 해도 시기상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내실화가 필요하면 거수해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내실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위치가 도로를 막고 하셔야 되는 페스티벌 같은데 해당 지역이, PDF로 6페이지거든요. 해당 지역이 그 위쪽으로는 교통편이 그 앞에서 버스를 타야지만 해당 위쪽 지역 구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조금 교통이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틀이나 도로를 막고 있는데 거기가 출퇴근 로드이기도 하고, 그 지역분들이 그 버스가 아니면 굉장히 먼 곳까지 가야지만, 버스를 한 두세 번 갈아타야 위쪽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통편과 명확한 축제 테마를 맞춰주셔야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게 과반수 이상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2가지로 조건부 추진으로 할 것인지, 재검토를 시키실 건지, 2가지 대안으로 거수를 좀 해주실까요?

조건부 추진이 좋겠다 하시는 분.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의견으로 해서 다음 안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다시 프로그램을 구성해 오고, 교통 관련된 것들을 그 계획을 가지면 누가 보는 건가요?

○ 위원장

- 여기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다 보시는 거죠.

4. 청담.압구정 빛의 거리 조성 사업

○ 위원장

- 그럼 다음 안건 부탁드립니다.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추경이 시기가 언제죠?

○ 사업부서

- 추경이 6월 10일입니다.

○ 위원장

- 그냥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전액 구인데 왜 시에서 심의를 하는지가 살짝 궁금합니다.

○ ○○○ 위원

-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축제는 3억 이상이면,

○ 위원장

- 금액에 따라서?

○ ○○○ 위원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사례에서 든 것처럼 유명한 데도 많은데 이게 실은 디자인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가지고 성패가 갈라지잖아요. 디자이너 선정은 어떤 기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실 생각이세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보통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행사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공개입찰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요, 평가위원분들이 7분 정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 ○○○ 위원

- 업체라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은 작가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 사업부서

- 작가도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계획에 맞는 실현 가능한 작가를 따로 요구를 해서 섭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그래도 지금 강남구에서 이 사업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실은 그전에 대략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갖고 계셨지 않겠어요?

○ 사업부서

-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송파구에서 석촌호수에서 하는 '석촌호수에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랑 여러 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가안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작가들은 어떻게 섭외하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참여했던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혹시 구청 내에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본사업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만 먼저 잘라서 디자인 가안을 먼저 설계하는 과정을 해보시고 이렇게 본사업으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 사업부서

- 디자인만 따로요?

○ ○○○ 위원

-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설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은 어떤 디자인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 사업부서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제일 처음에 용역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나면 거기서 디렉터라든가 디자인 인건비, 디자인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정해가지고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강남구 내에 있는 전문가 분들도 있고, 또 업체를 통해서 디자이너를 따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합니까?

○ 사업부서

- 디자인이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다음에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가 입찰 방식으로 하나요?

○ 사업부서

- 제안서를 그쪽에서 발표를 합니다. 업체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 위원장

- 네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 인근 상권이랑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기획단계이시기는 하지만 혹시 사전에 좀 조사하신 게 있으실까요?

○ 사업부서

- 사전에 주민 의견 조사요?

○ ○○○ 위원

- 주민 또는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라든지.

○ ○○○ 위원

- 같이 저도 연동해서 그런 질문들이 궁금했는데, 실제로 청담동이나 압구정 속에 자체적으로 이런 밤에 자기 나름대로의 루미에르인지 조명이 있는데 자기들만의 theme이 있는데 새로운 theme으로 주제를 가져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일종의 가수요 조사라도 하신 건지. 이런 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조사를 했는지, 수렴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 사업부서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빛의 거리 조성을 할 때 여기 저희가 생각한 내용은 가로수에다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랑 두 번째로는 빛의 건축물 해가지고 건축물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밤에 조명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빛의 건축물 사업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담 명품거리랑 압구정 동 쪽에 가면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빛의 건축물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 있는 협업하는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 위원

- 사업 대상 지역에 아파트랑 거주 공간 같은 게 있나요, 주거 공간?

○ 사업부서

- 주거 공간은 가까운 곳에는 없습니다.

○ ○○○ 위원

- 그럼 다행이네요.

○ 사업부서

- 빗공해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 ○○○ 위원

- 네, 빗공해 때문에.

○ 사업부서

- 가까운 쪽에는 없어서 그쪽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 ○○○ 위원
 - 제가 맡은 부분이라서 의견을 적정이라고 적어내기는 했고 와서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디자인을 다 업체에 맡길 생각만 하셔서.

- ○○○ 위원
 - 사실 이 행사를 기획하는 컨셉을 먼저 잡고 그 컨셉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할지를 구체화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저분 생각은 그냥 업체를 골라서 '내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 구청이 많이 그렇게들 일을 하지요. 전문가가 많이 부재되어 있어서.

- ○○○ 위원
 - 이 정도 10억 정도의 행사면 구청장이 어떤 TF를 만들어서 이 행사에 대한 컨셉도 잡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총체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준비가 되는지. 실무 담당자여서 아마 실무적인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 위원
 - 그리고 가능하면 이 안에 있는 상권에 있는 분들 상인협회든지 이분들과 건물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

은데 지금은 그냥 가로수나 이런 데에다가 조명 거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나 하는 생각합니다.

○ ○○○ 위원

- 저도 이걸 솔직히 재검토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추경을 물어본 게 이 투심을 거쳐야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6월에 있는데 오늘 투심을 통과하면 예산을 아마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보면 또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은 조건을 주지만 2단계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예산은 편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8월이든 사업을 구체화해서 심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 위원

- 왜냐하면 저도 요 시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크리스마스를 끼고 있고 연말연시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기라서,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단지로 이렇게 빛의 거리를 조성한 데는 흔치 않거든요. 신세계 스팟들만 있지. 그래서 면적으로는 없어서 시기 자체도 좋고 기획 자체도 좋으니까 그 내용만 말씀하신 대로 잘 보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 ○○○ 위원

- 해당 지역의 상인회하고의 사전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여기에 보면 진짜 명품 매장들이 있어서, 그런데 개네들 자체적으로 파사드니 이렇게 화려한 게 있는데 여기서 가져가는 주제랑 상충될 수도 있으니 상인회하고 사전 협의하고, 주민은 다행히 주거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해당 주민, 주요 이해관계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로 조명을 할 건지, 빛의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는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고 구체적인 예산까지 갖고 와라.

○ ○○○ 위원

- 여기 상권의 특성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매출을 올리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우선 저는 자치구 입장을 조금 생각하자면 지자체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시랑은 좀 다르게 구청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이 탄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구청 내부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예산부터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 내부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만한 인력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용역 발주를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 ○○○ 위원

- 자치구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작으면 고민을 해 갖고 오는데 여기는 주로 한 10몇 년 해봤는데 고민 좀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돈 고민을 안 하고 와요.

○ 위원장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일리가 있는데 우선 4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할 것인지, 부적정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우선은 그것에 대한 투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얘기로는 부적정이라든가 적정은 없는 것 같고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2단계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다수 거수)
그러면 조건부 추진인데 보고를 해라. 2단계 심사.

○ ○○○ 위원

- 그게 재검토하고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를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단계로 하게 되면 예산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어요.

○ 위원장

- 그럼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심사를 계획안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다들 동의되시는 거죠?

○ 위원 다수

- 예.

5.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지원사업

6.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지원사업

○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안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2개 다 영화제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 위원

- 분석에서도 있는 것처럼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수가 몇 년 동안 크게 변동 없이 2만 5천 명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은 그 두 개 영화제만 비교해 보면 예산 투자 대비 실은 관람객 수에 대한 그게 홍보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쩐지 그것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사업부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어왔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영화제 자체로만 보면 그렇지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1억 정도 되는데 관객 수가 1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성영화제는 총 사업비가 올해는 한 10억 정도고, 예전에 15억 정도였을 때만 해도 계속 꾸준히 여성 관객 수 2만 5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현재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사업비가 올해는 삭감되면서도 그래도 꾸준히 2만 5천 명의 관객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화제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좋은 영화제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인구 수 대비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인구 수가 완전히 다르니까.

○ ○○○ 위원

- 또한 이게 '97년부터 지금 올해로 26회?

○ 사업부서

- 26회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예산 중에서 홍보예산을 깎은 건가요? 왜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지.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돼야 되는데, 아까 부산국제영화제랑 비교하셨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인지도가 전국 단위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게 지금 26회 정도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냥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매년 전국의 영화제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진위 예산도 반으로 줄고, 영화제를 기존에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는 10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5위에 랭크될 정도로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영진위에서도 매년 심사를 통해서 영화제를 선별을 하는데 영진위에서도 계속 보조

금을 받아온 영화제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사업의 목표가 여성영화에 대한 확산도 있지만 더 불어서 그것이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효과성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진단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요번에 영화제 개최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사후 평가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질의 더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의견들 있으세요?

○ ○○○ 위원

- 이런 것은 할 수밖에 없고,

○ ○○○ 위원

- 이것은 행사계획 다 잡혀져 있고. 이걸 올리는 것 자체가,

○ 위원장

- 걱정으로,

○ ○○○ 위원

- 5번 사업은 적정인데, 6번 사업은 26년이나 했는데 이게 인지도가 이렇게 낮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자체 보조금으로 자부담 예산이 높고, 또 나머지 재정적인 약간 불안정성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 ○○○ 위원

- 사실 공모사업비가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총 규모를 많이 줄이다 보니 이 여성영화제에 투입이 작년보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적게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행사성 사업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행사성 사업비를 줄여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같은 경우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예요. 26년을 했는데 홍보라든가,

○ 위원장

- 그렇다면 서울시 플러스 자치구 공무원들이 엄청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내부 시보라든가 구보를 통해서 이 행사가 있다는 걸 좀 적극적으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 ○○○ 위원

- 참고로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하는 행사는 아니고, 워낙에 인지도가 있는 행사여서 저희가 진흥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 ○○○ 위원

-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자립심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 ○○○ 위원

- 그래서 작년에 7억 5천 주던 것을 사실은 4억 4천으로 줄였어요. 굉장히 많이 지금 줄인 상태여서 저희도 부서에는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 걱정으로 하겠습니다.

7. 마장동 문화시설 건립 사업

○ 위원장

- 그다음에 7번 안건 “마장동 문화시설 건립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공공도서관하고 키즈카페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 사업부서

- 2개 시설입니다. 1층은 필로티고요, 2층이 키즈카페, 3, 4층이 도서관입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랑 키즈카페,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서 치수안전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죠?

○ 사업부서

- 5월 21일 날 치수안전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 이 부지의 계획이 있잖아요? 서울시 계획이 있는데 여기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치수안전과에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보면 지금 시의 종합계획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이게 정합성이 맞는 건가요?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업부서

- 그 계획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조금 상충된 면이 있고. 만약에 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면 저희들의 키즈카페나 공공도서관은 거기에 입점시켜주시는 걸로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생각이구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은 장기적으로 늘어질 수가 있어서 주민들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빨리 2026년까지 키즈카페와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 부지가 먹자골목 무허가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되게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라 주민들은 다른 시설이 들어올까 봐 빨리 그 부지에 어떤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이런 것들을 좀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그런데 사업부서 내에서도 이를테면 상위계획이 있는데, 그 종합계획이 있는데 자기네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상충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 ○○○ 위원

- 아마 민원이 많으니까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을 그대로 그냥 지금 부지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중복투자 위험도 있어서 저는,

○ ○○○ 위원

- 사실 추진이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부지가 지금 어쨌든 정부 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 위원장

- 그러면 우선 말씀은 지금 시 계획하고 구청 계획이 같은 부지를 놓고 지금 상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사실은 구청에서는 '23년부터 어쨌든 애써서 노력한 흔적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내년이나 돼야 추진 계획이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걸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재검토나 부적정,

○ ○○○ 위원

- 부적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시 사업이 무산됐을 때 이 사업조차도 좌초가 되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은,

○ 위원장

- 그러면 한 1년 정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 계획이 무산되지 않으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럼 재검토,

○ ○○○ 위원

- 재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부지에 대한 환경부나 서울시, 국토부하고 협의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걸로 재검토 의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니까.

○ 위원장

- 그러면 혹시 조건부 추진에 손 드실 분.
저만 손을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검토로 해서,

○ ○○○ 위원

- 재검토를 하더라도 시설물의 너비나 혹은 용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너비 중에 주차장 면적이 절반이고, 아동시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실제 내부 시설 공간 보다는 관리적인 용도가 넓기 때문에 문화시설로서 하기에 적절한 너비인가.

그리고 앞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서 수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상지로서의 역할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해당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인구구조를 반영을 해서 청년센터나 혹은 다른 여성 지원이든, 아니면 교육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형태의 복합문화시설로 가는 것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지금 문화본부장이 보낸 의견서에는 지금 성동구 자치구 인구당 도서관 면적이 1,000㎡에 40㎡밖에 안 돼서 지금 도서관 개수가 0.36개로 굉장히 낮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키즈카페나 이것도 여성실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상에서는 두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셔서 이 시설 운영계획을 대충 보니까 1층에 이렇게 키즈카페나 수유실이나 이런 것을 보면 화재 안전이나 다 통해서도 그렇고, 1층에 워낙 키즈카페가 와야 되고, 이런 기계·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운영을 위한 것은, 그러니까 사무공간 혹은 시설 운영계획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어

했든 앞으로 또 협의를 할 테니까 다양한 용도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잠깐 10분 정도 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혹시 안 쉬고 그냥 가길 쪽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 ○○○ 위원

- 5분만 쉬시죠.

○ 위원장

- 5분만 설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8. 7호선 학동역 5번 출입구 E/S 설치

○ 위원장

- 그러면 7호선 학동역 5번 출입구.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그런데 이용률이 실제 이용자율이 5번 출구보다는 다른 데가 더 많은 걸
로 보여지는데, 5번 출구로 한 게 그 이유가 뭔가요? 7번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한 거예요?

○ 위원장

- 저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 사업부서

- 지금 10개 출입구 중에서 설치가 가능한 개소가 5번이랑 7번, 2개소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곳은 저희 설계할 때 활용하는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배돼 가지고 다른 곳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 위원

- 그러니까요. 7번은 14.3%가 이용률이 보이는데 5번은 9.8%잖아요.

○ 사업부서

- 거기도 답변을 드리면 7번 출입구가 설치하는 가능하지만 여건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 폭이 좁고, 또 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편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5번은 저희가 1,000형 설치가 2대가 가능한데 7번 출입구는 800형 1인승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면 혼잡도가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 위원

- 3번 출구하고 5번 출구는 지금 도보로 어느 정도 걸리죠? 길을 건너지는 않는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길을 건너야 됩니다.

○ ○○○ 위원

- 그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위원장

- 3번이 엘리베이터를 건너야 된다고요.

○ 사업부서

- 3번 출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5번 출입구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번 횡단보도 횡단이 필요하고요.

○ 위원장

- 자료에는 지금 같은 블록으로 보이는데요.

○ ○○○ 위원

- 그러니까 아마 좁은 길을 횡단하는데 한 50m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 이면도로를 횡단한다는 뜻이에요, 교차로를 횡단한다는 뜻이에요?

○ 사업부서

- 교차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 위원장

- 3번하고 5번 사이에?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거기가 학동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건너야 됩니다.

○ ○○○ 위원

- 사거리여가지고 여기가 도로 폭이 강남 치고 좁은 편이기는 하지만 3번 쪽에서는 길을 건너서 외따로 출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5번 쪽이 버스정류장에 가까워서 아마 거기에 생기면 밑에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 더 생기는 것이라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쪽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 위원

- 지금 1번하고 10번은 기 설치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1번하고 10번을 동시에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시차를 두셨나요?

○ 사업부서

- 이것은 도시철도역사 건설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초기에 설치한 곳이기도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도보로 언덕길이기도 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충분히 떨어져 있기는 한데, 현재 이용객이 좀 낮은 출입구를 선정을 하신 사유가 지금 7번이 훨씬 적은 이용객이 사용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라고,

○ 사업부서

- 네, 7번 출입구는 설계상 1인승 에스컬레이터만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고요, 5번이 1,000형 2인승이 가능한 여건이라 5번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7번이 이용객이 굉장히 높네요.

○ ○○○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3, 4, 5 이쪽으로는 좀 불편하기는 해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쪽 6, 7, 8 쪽으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 위원

- 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신 것들처럼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은 세우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역마다 이용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통로별 이용객 수, 그다음에 방향별로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 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석자료를 주실 수 있지 않나.

○ 사업부서

- 사실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세운다 해도 의원발의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이게 후순위라고 해서 저희가 매몰차게 그걸 받지 않거나 할 수 있으면 사실 저희 입장에

서도 우선순위를 세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좀 회의적입니다.

○ ○○○ 위원

- 그걸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냐고요. 결정하기 어려우시니까.

○ ○○○ 위원

-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과 비슷한 게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러면 이 4개 중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그냥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곳은 굉장히 많고 재원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장 급한 데부터, 필요한 데부터 해주는 게 맞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같은 색깔의 건수가 4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답변, 질의·답변, 질의·답변 한 다음에 우리 관계자분 나가시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했는데 너무 질문들이 많으셔서가지고 제가 이제사 질문을 하는데요. 5번 출구가 지금 심도가 5.12m 이것은 가운데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려는 걸 지금 설치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설치 안 한 부분의 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기 설치된 것까지 합쳐서 5.12m인가요?

○ 사업부서

- 중층은 아니고, 아마 4번이랑 5번 올라가기 직전에 그 내부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심도는 지금 5m가 다 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 ○○○ 위원

-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5번 출구니까 중간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도가 5.12m면 그 5.12m의 심

도는 중간 에스컬레이터 올라간 시점부터 아까 출입구까지 5번에 대한 심도인지. 아니면 전체,

○ 사업부서

- 5번 출입구만의 심도입니다.

○ 위원장

-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수요를 봐서는 아까 얘기한 것 처럼 7번인가 거기가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여기 7번을 보면 도면 구조도를 보면 아예 대합실부터 아무것도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번은 중간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걸로 그림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나요? 아니면 둘 다 양쪽 다 컨디션이 같은 건가요?

이게 3, 4, 5의 경우는 중간 레벨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6, 7, 8의 경우는 중간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걸로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 컨디션이 맞는 건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같은 컨디션인 거죠?

○ 사업부서

- 예. 위치도상으로는 이게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위치도거든요.

○ 위원장

- 양쪽 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양쪽 다 같은 컨디션인데,

○ 사업부서

- 3, 4, 5의 중층과 6, 7, 8의 중층.

○ 사업부서

- 이진 중간이 아니고 같은 출입구로 나가기 전에 내부계단을 같이 쓰는 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럼 같다고 보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러면 7번으로 만약에 저희가 의결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 ○○○ 위원
 - 저희가 7번으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심에서는,
- 위원장
 - 찬반으로만? 위치 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사업부서
 - E/S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은 5번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번을 말씀하시면 또 설계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사업을.
- 위원장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 ○○○ 위원
 - 없습니다.

9. 7호선 내방역 8번 출입구 E/S 설치

- 위원장
 - 그럼 다음 안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 사업부서
 - 두 번째 내방역 8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이고요. 내방역은 8개 출입구 중에 4개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로 8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 ○○○ 위원

- 엘리베이터는 어디 어디 있죠?

○ ○○○ 위원

-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3번이랑 4번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 ○○○ 위원

- 그러면 6개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네요?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 여기는 앞에 것에 비해서 엄청 더 많은데 또 들어온 거네요? 질문 있으세요?

○ ○○○ 위원

- 없습니다.

10.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입구 E/S 설치

○ 위원장

- 다음 안건.

○ 사업부서

- 2호선 종합운동장역의 경우 8개 출입구 중에 3개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어 있지 않은 3번 출입구에 계단 일부를 준치고 일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 위원

- 엘리베이터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위원장

- 엘리베이터는 없나 봐요?

○ 사업부서

- 6번 출구 야구장 있는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 ○○○ 위원

- 세 군데가 있는데요. 7번하고 6번 사이에도 있고, 8번 위쪽으로도 있고 옆쪽으로도 있고.

○ 위원장

-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나요?

○ 사업부서

- 현재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간에서는 6번 출입구와 7번 출입구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호선 쪽은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9번 출구 앞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6번 출구 쪽은 지상까지 올라오는 것이고, 8번 쪽은 지하 1층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보시는 것은 내부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고, 외부로 나온 엘리베이터는 6번 출구 뒤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야구장 쪽이 맞습니다.

○ ○○○ 위원

- 여기 지금 3번 출구를 계획하시고 계신데요 4번 출구가 이미 기 설치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길도 건너지 않는 동일 블록으로 보여요. 아마 아시아선수촌하고 우성아파트 쪽이라서 편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여고하고 교회 측에,

○ 위원장

- 교회 민원? 교회 민원인가요?

○ 사업부서

- 그쪽하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교회 민원인 거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11. 7호선 태릉입구역 5번 출입구 E/S 설치

○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안건 태릉역 설명해 주세요.

○ 사업부서

- 태릉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6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이고, 6호선, 7호선 총 합해서 8개의 출구가 있으며, 그중에 3개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5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안건입니다.

○ 위원장

- 왜 이게 다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을까요?

○ ○○○ 위원

- 그렇게 되면 4, 5, 6, 7 오른쪽으로 다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1, 2, 3, 8은 전혀 없는데, 좌측으로는 사람이 안 살아요?

○ 사업부서

- 이게 현장 여건이 그쪽이 좀 더 보도 폭이라든가 이게 좁아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서측 방향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개소로만 전부 돼서.

○ ○○○ 위원

- 그런데 이쪽에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가 3개나 더 위치해 있는데.

○ 사업부서

- 2, 3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3번 쪽은 둘 다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하려면 사유지를 침범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설치가 곤란한 위치입니다.

○ ○○○ 위원

- 1번도 마찬가지로인가요?

○ 사업부서

- 1번은 저희가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상부 전면 거리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것도 법령에 위배돼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 더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 ○○○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학동역 5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간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갔다가 어쨌든 3번, 4번, 5번 중에서 한 출구라도 에스컬레이터가 낮은 심도지만 설치가 되어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가 말하자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도가 5m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논리는 기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사업은 좀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3번 출입구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이나 편의시설을 꼭 이용해야 되는 노인들이시라면 3번 출입구를 이용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 ○○○ 위원

- 학동역 5번 출구를 노인의 편의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앞에 마트가, 그 지역에는 마트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어디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냐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집단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버스 노선상 어느 쪽으로 가는 버스인지가 5번 쪽에서 타는 버스하고 8번 쪽에서 타는 버스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역이 어가지고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특혜성 논란을 피하기는 좀 힘든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5번 학동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건을 다 봤을 때 물론 여기가 환승역은 아니지만 출입구 개소 수 대비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갯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한 쪽으로 쏠려 있어서 사실은 이게 서측으로 좀 뭔가가 하나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나머지 3건과는 좀 다른 케이스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했습니다.

○ 위원장

- 더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 저는 4건 다 재검토인데요. 그 사유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급한 데가 저는 많다고 보고요. 이 4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급성은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거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3건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으신 것 같고 첫 번째 안전에 대해서만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안전만 거수할까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 동의하시는 분. (위원 3명 거수)

그러면 모두 다 재검토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들면 좋은데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지 되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은 있으니까요.

○ ○○○ 위원

- 그러니까 뭘 객관적 근거를 주면 판단을 하겠는데,

○ 위원장

- 전체적인 걸 다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12.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1구간)

○ 위원장

- 그러면 네 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단절돼 있어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기존 원안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3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안전시설 추가라든가, 옹벽 기초형식,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 변경이라고 설명돼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 물가상승분이 102억 원이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토지 가격이 51억 원입니다. 이것은 투자심사에 보상비가 포함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집행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옆에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을 위해서 원래는 가교를 설치할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교 설치를 하게 되면 하천 제방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방 상부에 이렇게 복토를 해서 가도를 내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토공하고 포장 물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벽 높이가 3m에서 4m로 변경됐고요. 도시터널 방재지침에서 침수대책 강화를 위해서 피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상부로 올라오는 피난시설. 그리고 음향시설 보강, 경보설비 같은 것을 했고요. 소화설비도 간격을 좁혀서 더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하차도 상부를 건너서 탄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 휘밀아파트 구간을 전체 그것을 박스로 다 덮어달라고 해서 그 박스구간이 250m에서 275m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 위원장

- 질문 없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처음 올라온 안건은 아니고요, 2017년에 일단 투자심사 통과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특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났고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재심사 들어온 것이라서 상부에 공원화를 하고 6차로로 한다라는 내용은 종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기준점을 흔들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진짜 여기는 다른 형태로 대안을 검토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있어서 다시 설계를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요원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이 롯데월드 개발하고 문정지구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온 교통개선분담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도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 지금 계획안이 처음에 시도했던 것과 다르게 민원에 의해서 사실 계획안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 ○○○ 위원

- 그런데 2017년에 사실은 분담금이 들어왔던 것이고,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게 전적으로 다 투자된다고 보기에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통과됐었는데 사업비만 오른 것이고, 내용상에 크게 변화가 없다면,

○ 위원장

- 그렇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살짝 하고 싶은데, 지금 두 분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여기서 소진하고 있다, 또 소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우선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기타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상승분을 고려해서 전체 구간을 기존에 받았던 예산 플러스 해갖고 했을 때의 그 금액하고 현재 이 구간에 대한 금액하고의 경제성을 한번 검토해서 이 구간만 먼저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기존에 받았던 모든 예산이 몇 % 정도 여기에,

○ ○○○ 위원

- 그런데 사실 기존에는 이 구간만 하라고 조건을 줘서 통과를 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 이 구간만 하라고 통과시켰다고요?

○ ○○○ 위원

- 예예.

○ 위원장

- 저번 심의 때 투심에서?

○ ○○○ 위원

- 그렇죠. 2017년에 투심에서는 이 구간만 대상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됐었기 때문에.

○ 위원장

- 그렇다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기존에 여기 편도 1차선이거든요, 나머지 구간이 탄천로가. 그러면 남은 예산 가지고 이 탄천로를 최소한 4차선으로 증차선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이런 것은 한 번 더 볼 수 있나요?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예산을 다 넣어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차로 수 추가 개설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아니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우리 계획안이 그걸 감안하고 이걸 선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 ○○○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로계획과 밖에 아직 계시면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 ○○○ 위원

- 저도 저희 부서에서 이걸 설계 심의까지 했는데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1구간은 우선 설계를 진행해서 사업을 하고, 2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라라고 저도 이렇게 조건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2구간에 대해서도 덮개로 덮는 건 아니지만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도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확답을 말하자면 여기는 6차선으로 가다가 나머지 4km에 대한 부분은 웨밀리아파트 때문에 예산 다 넣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위원장

- 여기가 6차선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좌회전 차선 한 차선씩 준다는 개념이에요, 회전 차로. 그렇죠? 이게 5차선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회전차로 가운데로 나눠 쓰고 기본 2차선 쓸 수 있는 통행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5차선 설계에 대한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좀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배정할 수 있는 총 예산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어떤 계획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만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나머지를 다 버리면 이 송파구 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강남구까지 해서, 그건 너무 목소리 큰 사람 편에 선 계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 ○○○ 위원

- 그런데 지금 재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개선분담금 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설계상에 아까 공투에서 말씀하신 6차로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 교통개선분담금을 저희가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총 사업비를 거기에서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필요하면 그 지역에 더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몰입돼서 하게 되면 좀 논의가 어려울 것

같고.

○ 위원장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교통 특성을 보면은 웨밀리아파트 이 단구간보다는 그 다음에 수서IC로 가는 그 교량이 있는 데까지가 사실 수요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도 교량까지 가게 되면 말하자면 탄천 동측도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남부순환로까지가 이게 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기점이 있는데 기점까지 연결을 안 시키고 서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사업부서 입장)

○ 위원장

- 지금 저희가 1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로 처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은 예산 또는 시에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여기다 소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 사업부서

- 2구간이요?

○ 위원장

- 지금 현재 하시겠다는 1구간에 말하자면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들 진행하면서 받았던 예산들이 너무 짧은 구간 안에 대거 투자되고 남은 잔여 금액이 별로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게 아무래도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다 보니까요 연장 대비 공사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평교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또 저쪽에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하고 동남로하고 탄천 우안도로하고 접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교통 편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만 말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1구간 사업하고 완료되면 사업은 종료하실 건가요? 아니면,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2구간 부분은 '21년도 10월 달에 투자심사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절감방안 및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재검토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 그게 지금 언뜻 설명 듣기로 경제성에 대한 지금 현재 구간에 분석의 포인트가 진입램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지금 막혀 있는 램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수요들이 이 도로를 주변으로 이용하는 걸 여기다 다 경제성으로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로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없어지고,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한 경제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 사업부서

- 사실 저희 1구간 종점 구간이 광평교 교차로 구간이 주 해소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 종점 구간인 동남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광평교 교차로 같은 경우도 2구간 사업을 해야지만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사항이 일단 하나 있고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거기 램프가 막힌 것은 아파트 주민 민원 때문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다 건설해 놓고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 민원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건데, 여기 짧은 구간에다가 예산을 지금 비율을 말씀할 못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교통개선분담금을 총 818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수서역세권 사업에서 140억,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사업에서 228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구간에 쓸 수 있는 그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확정된 사항인 것이고요. 추가로 제2롯데월드 하면서 2013년도에 받았던 교통개선 부담금 450억 원 같은 경우에는 탄천 동로 전 구간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 818억 중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구간 대비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 위원장

- 잠깐만 제가 이해했는지 다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지하철도로 건설하는 게 지금 얼마가 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818억이 있는데 818억 중에 140억하고 228억은 여기 지금 웨밀리아파트 쪽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다. 그렇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은 이 예산은 그렇다치고, 나머지 450억이 나머지 구간이다라고,

○ 사업부서

- 전체 구간. 1, 2구간 전체 구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 위원장

- 1, 2구간 전체가 450억인데 합쳐서 818억이다?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 위원

-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것은 3백 몇 억이죠?

○ 위원장

- 368억.

○ ○○○ 위원

- 그리고 전체 구간이 450억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690억이 사실상 분담금을 받았을 때 과도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450억은 뭐라고요? 남은 돈이에요?

○ ○○○ 위원

- 450억은 롯데월드를 조성하면서 교통개선분담금인데 이것은 전체 구간에 다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전체가 450억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지점에만 368억을 쓴다는 뜻인가요?

○ ○○○ 위원

- 전체가 818억을 받았고요. 전체가 818억인데 그중에 탄천 여기 관련돼서 쓸 수 있는 예산이 2백 플러스 1백 해서 3백 몇인데 나머지 예산은 이 탄천을 포함한 전체 구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4백 플러스 2백 얼마를 더 끌어온다고 해서 6백 얼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가용 예산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 이것을 자꾸 문의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 구간에 많은 예산을 쓰는 건 좋은데 '미개설 구간에 대한 예산 부족 문제라든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찌지?'라는 게 우리 질문의 요지예요.

○ ○○○ 위원

- 이후에 또 시 예산을 그러면 또 구해야 되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 위원장

- 그러니까 요지인 즉슨 현재 이 도로에 돈 투자하는 건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선 설계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잔여 구간이 훨씬 더 길고 많잖아요.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질문의 요지가 그게 요지입니다.

○ ○○○ 위원

- 여기서 100 몇 억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이 추가로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명약관화한 것 아니냐.

○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고 나서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게 질문의 요지예요.

○ 사업부서

-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도 지난번 투자심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나머지 구간이 거의 4천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 위원장

- 나머지 구간이 3~4천억이 들어가요? 왜 그렇죠?

○ 사업부서

- 나머지가 연장이 4.3km입니다.

○ 위원장

- 4.3km인데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지금 웨밀리아파트처럼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위원장

- 지하로 안 내고 지상으로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 사업부서

- 지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다 탄천 통로를 지하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 네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예를 들면 교통개선분담금을 우리가 800억을 받았으면 그 사업비로만 하라 이것은 아니에요. 환경개선분담금은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천억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820억에 국한해서 이 2개 사업을 그걸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월점에서 도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더 이상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을 해 주세요.

○ ○○○ 위원

- 지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사업부서

- 지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지상 도로를 지하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탄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은 경제적 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B/C 분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 위원장

- 나가시는 분 나가신 다음에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이게 여기 수서IC로 들어가는 교량까지는 사실은 넓혀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 중간에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 2개 사업을 다 해야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요. 분리해서 할 뿐인 거거든요.

○ ○○○ 위원

- 지난번 심사 때 1차는 통과가 됐고 2차는 재검토가 나왔는데 이것은 1차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사가 온 거거든요. 사업은 다 하죠.

○ 위원장

- 일단 한 번은 됐는데 증액된 것만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 위원

- 어차피 1구간, 2구간을 2개의 사업이 처음에 같이 들어왔는데 한 쪽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요 1구간 먼저 해라. 그때 1구간을 먼저 하고 2구간은 재검토를 하라고 나왔던 것이어서 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를 다 그것으로 수용해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6차로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조건을 달아서 5차로로 하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조건을 달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또 이게 늦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 ○○○ 위원

- 처음 이 상황을 접하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간의 지난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 ○○○ 위원

- 정리를 하시죠.

○ ○○○ 위원

- 저는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5차선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 위원장

- 그러니까 그건 의견이고요. 의견은 5차선 설계로 해서 예산 최소화.

○ ○○○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조건부로 하되 5차선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 위원장

-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대한 비용은 별도 다른 예산으로 해라. 교통비용은 아니다.

○ ○○○ 위원

- 교통개선분담금이니까 그 목적에 부합한 사업내용인지.

○ 위원장

- 목적에 부합해서 그 외의 시설, 그러니까 환경 개선을 위한,

○ ○○○ 위원

- 이게 재원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업이 유연성이 좀 없을 것 같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개선분담금이 실제 당초에 820억이 됐을 때 명확하게 이 사업에 전적으로 어느 정도 투입했는지를 지금 모른 상태에서 결정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이건 재정적인 문제라서 저는 아까 공투에서 말했듯이 5차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2단계 심사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주고,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 ○○○ 위원

-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라서 2단계면 재심사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거의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 위원장

- 2단계 사업이?
- ○○○ 위원
 - 지금 2단계라는 게 설계가 끝나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올려라라는,
- 위원장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 ○○○ 위원
 - 아니요. 2단계 심사라는 그 의견 말씀하시는데,
- ○○○ 위원
 -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5차선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설계를 하면서 관련해서 검토는 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VE 하고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의견이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 정도면 사실은 보고를 받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심사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그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라는 건데,
- ○○○ 위원
 - 이미 넘어 나갔네요. 그렇게 하시죠.
- ○○○ 위원
 - 그러네요.
- ○○○ 위원
 - 그리고 도로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아파트단지 옆에서 이렇게 규모를 넓히고 하면 꼭 여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나가는 통행량이 많아지고, 소음이 증가하고, 매연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서고 민원을 걸기 시작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덜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 위원장
 -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구간을 넓혀갖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

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측하고 북측하고 그 밑에 블록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거기하고 거기하고 연동이 돼야지.

○ ○○○ 위원

-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17년에 그냥 분리해가지고 하자고 일단 한 거거든요.

○ 위원장

- 탄천로가 오다가 갑자기 넓어진 풀이나 마찬가지로요. 의미가 별로 없는데, 교통 측면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투표해야죠. 그럼 조건부 추진하고 재검토하고. 그러면 재검토에 손 드세요. (위원 2명 거수)

조건부 추진 나머지 모두? (위원 다수 거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 금하로(동일여고 등 통학로) 지중화 사업

14. 시흥대로(문성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 위원장

- 이제 다음 것들은 지중화 사업이고, 그다음에 도로종합사업이고 하니까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여러분?

○ ○○○ 위원

- 네.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공사비가 편차가 사업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여기에는 크게 전주하고 통신주, 그리고 이용하는 주택들의 통신 선로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 ○○○ 위원

- 지장물,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전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개략공사비를 산출한 내역입니다.

○ ○○○ 위원

-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이 있는데 금하로 같은 경우는 후보군 5순위로 돼 있고요, 시흥대로 같은 경우는 후보군 2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름의 금천구 안에서의 기준이 이 계획과는 다르게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후보군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는데 금하로는 5순위에 해당되는데 지금 올리셔서 앞단에 1, 2, 3, 4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신 건지.

○ 사업부서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학교 주변 통학로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노후산단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12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 ○○○ 위원

- 국비를 확보하려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원래 지중화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전에서 지원하고 있죠.

○ 사업부서

- 한전하고 통신사업자.

○ ○○○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부의 학교 그린뉴딜사업 지중화 사업으로 두 개 다 올라온 거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하고 별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 위원

-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시 재정이 좀 적게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 위원장

- 질문,

○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비도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사업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것은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 위원장

- 그러면 걱정하고 조건부 추진이 있는데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두 걱정이십니까?

○ ○○○ 위원

- 저는 걱정.

○ 위원장

- 모두?

○ ○○○ 위원

- 네.

○ ○○○ 위원

- 걱정입니다.

○ 위원장

- 걱정으로 두 건 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

○ 위원장

- 그다음에 15번 안건.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이게 30년 경과됐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한 번 공사나 리모델링 이런 건 안 거쳤나요?

○ 사업부서

- 30년 민간에서 운영을 한 이후에 기부채납을 다시 받고 환경정비를 간략히 한 정도의 그런 정비는 있었습니다.

○ ○○○ 위원

- 글썽요. 공원이 30년이 돼서 낙후됐다라는 표현이 공원이 정말로 낙후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시설들이 문제가 돼서 그걸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도 크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원을 굳이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싹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 건지.

○ 사업부서

- 우선 이게 말은 공원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광장 및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현재 지상부는 건축물이 전혀 없고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갈아엎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계속 유지할 한 상태로 지하 1, 2층의 일부와 그리고 지상부에 소규모 건축물을 증축하는 그런 부분 정비의 공사입니다.

○ ○○○ 위원

- 소규모 건축물들은 음식 팔거나 뭐 이런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게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 사업부서

- 비록 한 블록 뒤로 새문안로 쪽으로 가면 식음시설이 있기는 한데 현재 광화문광장 방문객들이 광장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식음시설은 현재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광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푸드트럭을 운영해봤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고요. 또 만족도가 높았고, 현재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 공사가 완료되면 그런 임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광장 방문객을 위한 식음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시설 이용계획이라고 할까요? 운영계획이라는 게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지상 1층에 기타 공유면적이라든가, 지상 1층에도 주차장이 있고, 휴게음식점하고 편의시설이 공유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지하 1층에도 보면 공원업무시설, 기타 공유면적, 그다음에 다시 또 지하 2층에 들어와서 일반음식점, 기타 공유면적, 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서 시설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시설을 입점시키고 또 입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로 생각 안 해보신 거죠?

○ 사업부서

- 우선 지상부에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안에 녹지관리인력이라든가 그분들이 사용할 만한 주차면 수가 한 3면 정도 되는 거죠. 3면 정도가 되는 굉장히 작은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음시설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및 주변 녹지관리인력들이 필요한 사무소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고. 식음시설들이 지하 2층에 들어간 이유는 지하 1층의 일부의 천장을 없애고 지하 1, 2층을 통합해서 개방감을 확보하고,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식음시설은 지하 2층에 조성되고, 천장이 두 배로 넓어지는, 그렇게 커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위원

- 그럼 지상 1층에도 기타 공유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은 주변에 식음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상 1층에 일부 휴게편의시설 놓고 기타 공유면적이라는 건 이게

사무공간인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건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법에 따라서 면적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로 구획된 면적이 있고 보통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파트로 치면 공유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유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는 쇼파나 이런 것들을 두고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 ○○○ 위원

-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하 1층으로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지하 2층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통로를 추가적으로 확보를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는 기본적으로 썬큰을 조성해서 광화문광장 일대 지상부에서 바로 지하 2층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지하주차장으로 1층에서 바로 썬크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소리인가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지하 2층 식음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 위원장

- 지하 2층까지?

○ 사업부서

- 네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현재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가 굉장히 안 돼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작은 가게들, 양복점이나 등등등 거의 다 나간 것 같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다 나가고 없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중간에도 음식점도 잠깐씩 있기는 했었는데 사람들 접근이 굉장히 안 됐던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현재는 없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실은 그쪽에 기존에 장사가 안 됐던 이유가 지금 사업제안서를 보면 시설이 안 좋았다는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실은 그것 외에 다른 요인은 없는지 고민을 먼저 좀해보시는 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닐까요?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 내부의 환경이 굉장히 좀 어둡고, 우범화가 우려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하 1층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을 조성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아무래도 지금은 썬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세종로공원 지하에 공간이 있다는 것도 잘 인지가 안 되는 실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화문광장 방문객이 식음시설을 필요로 하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상부에 푸드트럭을 운영해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한 상태입니다.

○ ○○○ 위원

-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잘 안 차진다는 이 말씀이지 않아요?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이 있는 날이 아니면. 그런데 혹시 그게 그렇다면 거기가 좋은 위치라서 사실은 주차의 수요가 많은 위치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주차비가 비싸서, 그런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다시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해도 폭이나 이런 것을 넓히는 것은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 사업부서

- 폭이라고 하면 어떤,

○ ○○○ 위원

- 여기 보면 좁은 폭과 주차구획 등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현재에서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 사업부서

- 우선은 구획이나 폭 같은 게 예전에 워낙 오래 전에 조성되다 보니까 그 당시 규정에는 부합했으나 현재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지하주차장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 1, 2층 및 지상부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주차장 부분에는 주차장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조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 관련해서는 현재 1,260대가 있는데 890대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 규모는 어찌됐건 사대문 안에 부설주차장을 제한하는 정책 방향도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어느 정도 대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및 문화본부와 협의해서 세종문화회관도 리모델링이 되는데 그 규모를 감안해서,

○ 위원장

- 질문에 국한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세종문화회관의 향후 계획까지 반영된 주차 대수가 890대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규모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기둥을 그대로 두고 페인트칠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현재 용도로 쓰고 있는 지하 1, 2층은 말하자면 열어서 지

상에서 1, 2층을 다 내려다볼 수 있게 하면서 편의시설을 넣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상부는 광장화 해서 이쪽에 세종로하고 연계해서 보행동선을 이끌고 오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업부서

- 네. 지상부에는 소규모 건축물이 생깁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제가 하나만 여쭙보면 이게 땅의 위치가 굉장히 좋고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지금 정해진 기본계획에서 공간구성이나 용도 같은 것들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 사업부서

- 국제설계공모를 올해 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다만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방향을 공모지침에 담아서 그걸 제약조건으로 걸어서 공고를 띄울 예정이고요.

○ ○○○ 위원

- 지금 층별로 용도 같은 것들을 정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지침을 줄 것인지 정리한 게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는 우선 지하 3층부터 6층까지 주차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 1, 2층 및 지상부는 지상부에 오픈 스페이스는 최대한 유지하되 광장 방문객을 위한 식음시설 위주의 그런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았고, 또 그렇게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면 푸드트럭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식음 시설에

들어가서 레스토랑 같은 식당이 생겨서 음식을 사서 드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푸드트럭은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밑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식음으로 하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텐데.

○ 사업부서

-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고, 분식 혹은 파인다이닝의 느낌이 있는 그런 시설들은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세종문화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 ○○○ 위원

- 여기는 그냥 푸드트럭같이 저렴한 것으로?

○ 사업부서

-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좀 간편식 위주의. 그리고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푸드홀 형태의 방문객을 위한 다소 저렴한 그런 것들을 조성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수요조사 했는데 28%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막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그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선택이 많았던 게 이게 1위였습니다.

○ ○○○ 위원

-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되죠?

○ 사업부서

- 네, 변경해야 됩니다.

○ ○○○ 위원

- 가능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하고 계신 거예요?

○ 사업부서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현재 착수를 이미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저도 재검토로 의견을 냈는데요. 일단은, 글썄요. 이게 물리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콘텐츠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고요. 이만큼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서까지 이렇게 식음시설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게 조금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을 새롭게 만들고 세종로공원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봐서 열린 광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더 많은 공간을 시민들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도 도시계획시설 어렵게 지정해 놓은 걸 굳이 폐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조건들을 좀 달았으면 합니다.

○ ○○○ 위원

- 저도 조건부 적정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광화문광장이 600m가 넘거든요. 기장이 6백 몇 십 m인데 거기 화장실이 제일 끝

단인 광화문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장실 수요를 다 지금
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나마 세종로공원이 공공 열려 있는 화장실
이거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
는 시설물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를 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 편의시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진입로가
너무 어둡고 불안하니까 거기가 우범지대로 보여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잘 안 내려가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안에는 사람이 안 쓰니까
텅 비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한 상
황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이 초기에 새로 단장을 하면서 한 쪽 차로를 없애면서
기존의 세종로공원하고 원래 맞닿을 계획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맞닿
은 이후에 그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광장에 행사를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쏟아져 나와서 다른 조금 더 안전한 도보를 할 수 있는 공간 여
력이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인근 차로 쪽 방향, 그
리고 반대쪽에 세종로 방향 쪽을 사람들이 주요 통로로 이용을 하게 되
는데 그쪽 부분에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가로등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까 거기가 좀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도 빠지지 못하고 광장에 밀
집되면서 안전사고나 위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마 세종로공원 위층에 차를 댈 곳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그 부분
이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 지원차량이 와가지고 무대 설비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공간의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하고 세종로공원 사이에 주차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
기에 주차면 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이용 시설물의 편의성을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되 지
금 식음료 시설을 주요하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원래는 광화문광장 초
기 계획상에 현장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오픈공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하화하는 구간을 전체를 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 구간이
없으면서 연주를 하니까 그냥 아무 위치나는 아니고요 지정되어 있는 위
치에서 그냥 밖에서 공연 연주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실내공원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사
용이 가능한데 이걸 식음료 시설로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시설 용도를 조금 개방해가지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설비로 바꾸는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의견 주신 게 조건부 추진보다는 재검토에 가까운 의견들로 저는 이해가,

○ ○○○ 위원

- 저는 조건부 추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말이나 이럴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가 느낀 건데 사실 아예 다 벗어나서 한참 이동을 해야지만 식음료 시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 때문에 만든 것이고.

또 지금 거기만 별도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건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재검토하고 조건부 추진하고 두 가지 가지고 우선 거수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조건을 다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에 손을 좀 들어주시면. (위원 8명 거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추진을 하되 지금 말씀 주셨던 식음료에 너무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서 고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 쪽으로 추진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마무리지으면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 위원

- 시설 운영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 ○○○ 위원

- 기본설계 이후에 2단계 심사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공모하고, 공모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서 2단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 위원

-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조건 중에 광화문광장하고 연계된 설계안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만,

○ ○○○ 위원

- 예,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관광객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방문객들이 식음시설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꼭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 ○○○ 위원

- 그리고 모르겠어요. 꼭 그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냥 일정 공간을 푸드트럭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 위원장

- 푸드트럭도 재미는 있어요.

○ ○○○ 위원

- 꼭 거기 아니어도 되거든요.

○ ○○○ 위원

- 화장실은 저는 거기를 이용하지는 않고, 화장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세종도 그렇고, 교보도 있고, 그 앞에가 역사박물관이잖아요. 열린 화장실이 그 일대에 굉장히 많아요.

○ ○○○ 위원

- 많은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못 찾고 광화문역까지 쪽 내려가요.

○ ○○○ 위원

- 그 화장실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 위원장

- 그럼 지금 총체적인 얘기가 어차피 리모델링인데 과한 투자 말고 소규모 투자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계획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 ○○○ 위원

- 사실 그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게 기회비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광장에 대한 그 지가가 3,700억이에요.

○ ○○○ 위원

- 그런데 아까 식음료도 고급 분식점 하겠다는 거잖아요.

○ ○○○ 위원

- 2단계 심사 때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 많은 분들이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여해서 말씀들 주실 것이니까요.

16.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 위원장

- 다음 안전 부탁드립니다.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종전 투자 심사 때 재검토가 교통처리계획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개선된 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사업부서

- 일단 불광천과의 연계 처리계획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불광천과 연계 처리할 때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상세한 설계내용이 포함되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본자료에 있나 보죠?

○ ○○○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전에 재검토할 때도 박스 6련 철거, 2련 신설인데 이번에도 똑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박스 6련 철거하고 2련 신설은 동일하고요.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박스를 하나 더 신설을 했었는데 그 해당 부분을 지금 청계천하고 동일하게 교통처리계획을 보완하면서 신설된 박스 연장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위한 별도의 박스는 저희가 없었고요. 그리고 불광천과 연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교통처리계획이 지금 현재 투심 자료에는 없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사업비에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지금 이 예산은 산출이 446억인데 이 예산이 혹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전에 투심 받았을 때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거든요. 교량에 대해서도 교량이 지난번에 1개소였는데 지금은 3개소로 설치가 된다고 돼 있고, 징검다리 설치가 2개. 그리고 또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변경이 됐는데 예산이 지금 실제 증액된 것은 한 1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사업부서

- 크게 변경이 된 내용들은 투심 자료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요 철거공이 있습니다. 지금 토목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이 철거공이 있는데요 철거공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당초에는 기본설계 수준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하였다면 근본에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철거공에 대한 공사비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아까 신설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 또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직전에 비해가지고 지금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상태인 게 맞나요? 지금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전에 '24년 2월에 하실 때에 도로 포장이 5,700m 정도인데 이번에 올려주신 게 도로 포장이 1만 1,4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도로 포장이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대신에 이 금액이 많이 증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법 변경이랑 그리고 조정 시설이 제외되면서 금액이 많이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여쭙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더 질문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부서 퇴장)

○ ○○○ 위원

- 저는 간단히 질문이, 이게 조건부 추진에 재검토가 두 번이 올라온 건인데 오늘 결정이 혹시라도 재검토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 위원

- 이게 사실은 2020년에 당초에 428억으로 투심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한 750m에 대한 박스 철거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통과를 했었죠. 통과를 했었는데 2023년도에 아마 새로 다시 투심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125억으로 전체 구간을 한 3배 정도 늘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경제성도 그때 0.01이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정했던 것은 이게 너무 부서에서 저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10월에 한 3배를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왔고, 한 달 네

달 만에 다시 사업을 3분의 1로 또 축소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검토가 났는데 이번에는 또 세 달 만에 교량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도로 포장도 2배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내용적인 면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려워서 이게 저희 공투에서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부서에 하기도 좀 어려워서 이런 고무줄 같은 사업비 내용이나 사업비 산정이 가능한지도 조금 좀 궁금하고. 그래서 기쁘하고 공투 의견이 있으면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설계까지 한 내용 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게 불광천하고 지난번에는 연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타당성이 있냐, 그럼 사람들이 불광천 가려면 다시 올라갔다다 다시 길을 건너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내용을 불광천하고 접속하는 구간도 철거하고 통로 신설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 버전으로는 VE를 했고요, 지금 이 버전으로는 VE라든가 설계 심의는 아직 진행은 안 했는데, 공사비 적정성은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요 근처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도 받았던 내용, 그러니까 '24년 2월에 투심 올렸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반영해가지고 다시 제시는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비가 적정하다 아니냐는 사실은 그 설계 내용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것은 VE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심의를 하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 ○○○ 위원

- 상위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우선순위 1순위로 일단은 돼 있는 것이고요.

○ ○○○ 위원

- 이게 복원이 되면 다른 데하고 좀 더 연결되거나 그런 건 있나요?

○ ○○○ 위원

- 그런데 이걸 복원을 하면 지금 교통량이 결국은 주변으로 분산돼야 되니까 교량을 3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량 가설이 이게 어느 정도의 교량인지를 이 자료로 봐서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교량 3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 교량은 하나 같은데요.

○ ○○○ 위원

- 지금 보면 교량 가설이 3개소라고 해서 금회에 들어온 것은,

○ ○○○ 위원

- 경간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70억 지금 파쇄하는 공법에서 철거공법에 70억을 감소하거든요. 그럼 교량 하나 한 20억 정도 잡으면 불가능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이게 가설이라서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가교 설치하는 그런,

○ ○○○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기본의 교량을 뜯어내면,

○ ○○○ 위원

- 복개구조물을 뜯어내고 공사하는 동안에 차가 다녀야 되니까요.

○ ○○○ 위원

- 그럼 뜯어내면 나중에 그걸 철거하게 되면 교통에는 문제가 없나요?

○ ○○○ 위원

- 일단 교차로 부분은 다시 복귀를 다 하는 것이고요. 그 뒤쪽에 역촌역 쪽으로 가는 구간에서 교차로 부분을 제외하고, 교차로 부분은 당연히 연

결이 돼야 되니까. 하는데 아마 교통분석도 다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차선 남기는 것하고 기존 차로 수하고 비교해서 교통 분석해서 아마 계획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토론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추진하고 재검토?

○ ○○○ 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심사 때 제가 들어왔었고요. 그때는 제시를 할 때 불광천하고 굉장히 떨어진 구간에서 일부 구간, 그러니까 조금 공사를 하기 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촌역하고 응암역 사이의 구간을, 굉장히 짧은 구간이죠. 400m가 안 되는 구간을 따로 제시를 했다가 어차피 이렇게 따로 떼서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불광천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애초에 심사 받을 때 불광천에서 연결이 되게 해가지고 끝을 내라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너무 상단에 치장물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크게 잡혀 있으니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라고 요청하시면서 교통상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교량이 필요하다면 증가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심사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신 거죠?

○ ○○○ 위원

- 듣기에 따라서, 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 거수하실까요?

조건부 추진이 과반수가 넘으셨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시고, 특이하게 의견을 아까 꼭 달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교통량을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조건을 꼭 달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 위원장

- 제가 보니까 수요가 그 라인에 교통량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찾고 있나.

○ ○○○ 위원

- 해당 내용은 지난번 심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요. 그때도 평소에 평일 이동량이 많은 게 아니고 피크 시간대에 그 구간을 통과해서 출퇴근을 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가 바로 해소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어가지고.

○ ○○○ 위원

- 그렇게까지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도 제가 그리로 출근을 했는데 제가 지금 회피하는 사유라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연결을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렇게 액수가 커가지고.

○ 위원장

- 그 교차로 부분은 넓혀봤네요. 가로구간만 기본 4차로로 하고.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사실은 여기서 들어오는 교통량 표시가 안 돼 있어갖고 내가 못 보고 있나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듣성듣성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교통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누락되어 있거든요. 여기 교통량이 빠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교차로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기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7. 개화 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사업

○ 위원장

- 다음 안전 부탁드립니다.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지금 설계하신 것 기준으로 하면 강수량이 시간당 얼마 이상까지 버틸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설계하신 거예요?

○ 사업부서

- 이것을 설계할 때 강우강도 5년 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 ○○○ 위원

- 5년 빈도라면 5년 내에 그것보다 더 오면 침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사업부서

- 이 지역여건이 지금 사람은 살지 않고 그냥 공장, 건설폐기물 업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장기적, 중단기적 여러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5년 빈도로 할지, 10년 빈도로 할지, 20년 빈도로 할지, 100년 빈도로 할지 고민을 해본 결과 여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이 현재 방화 5호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5호선 차량기지가 지금 김포로 이전 예정에 있고, 그렇게 하여 중장기적인 대책보다도 5년 빈도로 설계함으로써 해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차량 및 그런 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강우강도가 점점 세지고 하는 추세인데 기왕에 하실 것 5년 빈도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사업부서

- 여기 5호선 차량기지가 김포로 이전함으로써 여기가 또 개발계획이 있고, 무리하게 20년 빈도로,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하면 우수지 및 펌프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곳에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5년 빈도로 계산했을 경우 침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최소 침수심이 한 10cm 정도밖에 침수가 안 될 걸로 시뮬레이션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 ○○○ 위원

- 개발은 언제 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개발은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방화 5호선 차량기지가 김포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있는 건폐장도 같이 이전하는 게 매스컴에 나와 있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개발계획이 매스컴에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무리하게 장기적인 그런 예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 위원장

- 또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의견 없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 위원

- 이 사업이 원래 36억 원으로 해서 진행이 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투심 대상이 된 거거든요.

○ ○○○ 위원

- 그러니까 30년 이상 이렇게 하려면 빗물펌프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수문을 닫으면 물이 못 나가니까 수문에다가 펌프를 달아가지고 수문을 닫고 나서도 일정 수위 아래에서는 계속 안에 있는 빗물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5년 빈도로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단 우선 긴급조치는 하겠다 이런 의도로,

○ ○○○ 위원

- 흡수정이랑 설비 이 전체의 위치를 문제시 삼은 것 같아요. 시설.

○ 위원장

- 세부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지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걸로.

○ ○○○ 위원

- 그러니까 설비.

○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8. (지방재정영향평가) CES 2025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

○ 위원장

-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자료 배부해 주세요.

(자료 배부)

○ 간사

-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ES 2025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란 지방재정법 제27조의 6에 근거하여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공모사업 등을 유치 신청 또는 응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두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인 경우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심사 안전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영향평가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 2022년 제6차 투자심사 시 총 사업비 약 22억 원을 전액 시비로 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으나 이번에는 시비 규모를 19.5억 원으로 축소하였으나 민간자본 13.6억 원이 추가된 관계로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으로 증대되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이 크지 않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침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결과는 100점 만점에 85점이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저는 한 가지 좀 다른 의견인데, 대학이 참여하잖아요. 대학이 수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회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회의록에 회피 신청한 것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점은 어디서 준 거예요?

○ 간사

- 저희가 점수를 내는 기준이 있고요.

○ 위원장

-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주는 건가 보죠?

○ 간사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 위원

-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정량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간사

-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재정영향에 대한 것은 크지 않은 건 인정이 되는데 실은 CES 행사에 서울시로 참가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를 들어 그쪽 관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제품 중심이나 아니면 뭔가 나타내는 팩트를 가지고 관을 여는데 지금 구성(안)에 보면 구청하고 대학교가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을 갖고 오는 식이 되는데, 그러면 CES 참관객이 여기 들어와서 뭘 보고 갈 것이냐.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만 보고 갈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 와서 뭘 보고 갈까.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관을 여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 ○○○ 위원

- 대학 옆에 참여 기업 수가 이룰테면 대학 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스타트업들이나 창업하는 데서 하고 있는,

(사업부서 입장)

○ 위원장

-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서울통합관에 들어오는 이 대학교들 있잖아요? 단체들. 이런 데들이 CES에 내보낼 만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룰테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로 구성된 건가요?

○ 사업부서(SBA)

- 네네, 맞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는 한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창업하는 교수창업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자매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CES 2024 때에도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셔가지고 CES 혁신상도 수상하시고, 또 바이어들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있으셨습니다.

○ ○○○ 위원

- 이 CES에 별도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을 통해서 얻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가 뭔지 간략하게만 말씀 주세요.

○ 사업부서(SBA)

- 저희가 생각하는 건 CES가 매년 가장 제일 처음 열리는 전시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을 최초로 국내, 해외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무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내에 있는 창업생태계의 주요 파트너십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서울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을 함으로 인해

서 그 각 기술들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CES 라는 전시를 통해서 해외 홍보효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제공, 그리고 여기서 혁신상 수상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품들의 다각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이런 식으로 참여한 게 몇 년째예요?

○ 사업부서(SBA)

- 지금 올해 2025년이 4회차가 됩니다.

○ ○○○ 위원

- 그러면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제 그게 business opportunity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는지.

○ 사업부서(SBA)

- 지금 CES 2024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혁신상 수상 업체만 총 18개사가 나왔고, 그중에 최고혁신상을 2개사가 받았습니다. 이 기업들만 해도 지금 국내에서 엄청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투자기관들, 해외 투자자들,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 쪽에서도 이 업체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협업을 하려는 수요들도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CES만큼 이 기업들을 세계시장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 위원

- 한 내년 정도는 투자유치 효과가 분석 가능한가요?

○ 사업부서(SBA)

-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효과 분석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서울관 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도 전시관이 별도로 있는 거죠?

○ 사업부서(SBA)

- 네, 맞습니다.

○ ○○○ 위원

- LG나 삼성이나.

○ 사업부서(SBA)

-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전시관은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메인 전시무대가 있고요. 스타트업들만 전시할 수 있는 유레카 파크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저희는 이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하는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이 대학들도 매칭을 내는 거죠? 매칭펀드를 같이 내는 거죠?

○ 사업부서(SBA)

- 네네, 맞습니다.

○ ○○○ 위원

- 같이 내지만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이 라든가 이런 것을 꾸밀 때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죠?

○ 사업부서(SBA)

- 네, 전체 조성비, 그다음에 기업지원비, 그다음에 그밖의 부대행사들을 운영하는 비용들을 저희 SBA 포함해가지고 각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전체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이걸 약간 번외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부산관 이런 것도 있어요?

○ 사업부서(SBA)

-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울시 주도의 서울통합관을 조성을 하다 보니 아쉽게도 지금 다른 지자체들과는 아직 협업을 하지는 않고요.

○ ○○○ 위원

- 다른 지자체도 개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SBA)

-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나 대구 경북이나 전라북도나 이런 기관들은 따로 각자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코트라나 창진원 통해가지고 또 그런 단체관 안에 들어오시는 케이스들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 ○○○ 위원

- 참여했던 기업들 관련해가지고 기업 생존율이나 아니면 이후의 매출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신 게 있는지.

○ 사업부서(SBA)

- 그런 효과분석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지난 CES 2024 때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조금 우수한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월드IT 쇼라고 하는 전시회에 저희가 후속지원으로 저희가 또 참여 지원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계속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나 아니면 비즈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다각화시키려고 후속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들을 하고, 또 후속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 기업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방법이 꼭 관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하시는 방법도 방법인데 서울관으로 만들었을 경우의 장점은 뭐예요?

○ 사업부서(SBA)

- 서울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CES라는 전시회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아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각 국가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만 유독 코트라, 과기부, 서울시,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들 각각 파편화되어서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CES라는 건 저희가 어떤 컨셉들을 통일을 해서 가자. 다만 코트라 쪽에서도 통합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코트라가 만들어 놓은 간판 하나에 하우스만 짓고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탈피를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서울 관내 기업들을 동일한 프로그램 안에서 동일한 컨셉으로 운영을 하자. 대신에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각 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업 선발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존중을 하지만 전체적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시장에서 코리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서울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서울이 갖고 있는 첨단화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첨단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조금 더 주목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CES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우리 간사님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 간사

- 지금 지방재정영향평가는 걱정으로 의결해 주시면,

○ 위원장

- 네, 걱정으로.

○ ○○○ 위원

-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들처럼 효과분석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보고 리포팅해 주는 조건으로.

○ ○○○ 위원

- 적지 않은 예산 35억 정도인데 한 3년차까지는 사실 그 효과성 분석이 어렵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한 4년차 됐고 5년차 됐으니까 이제 슬슬 실제 이게 투자유치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진짜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몇 가지 평가지표를 갖고 효과성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 간사

- 주신 의견은 부서에 취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안건은 17건이었고요. 걱정 4건, 조건부 추진은 6건, 2단계 심사 2건, 재검토 5건, 부적정은 0건으로 그래도 부적정이 없는 심의위원회로 맞출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안건 1건은 걱정 1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4차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17시 20분, 폐회】